

공무원 연금적자 향후 10년간 53조원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왜 개혁해야 할까요?

❶ 재정적자가 늘어만 갑니다

- 예전에 비해 평균수명이 늘고, 연금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3년간 공무원 연금 적자 1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 적자는 현 정부 15조원, 차기 정부 33조원, 차차기 정부 53조원 등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❷ 같은 공무원인데도 받는 연금액 차이가 너무 큼니다

-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상한액은 804만원으로 국민연금 407만원보다 2배 가량 높아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연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❸ 일반국민이 받는 국민연금과 격차가 너무 큼니다

- 국민연금은 낸 돈의 1.6배, 공무원연금은 낸 돈의 2.4배를 돌려받습니다
- '13년 월 평균 연금액은 국민연금 32만원, 공무원 연금 219만원입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후손에게 빚더미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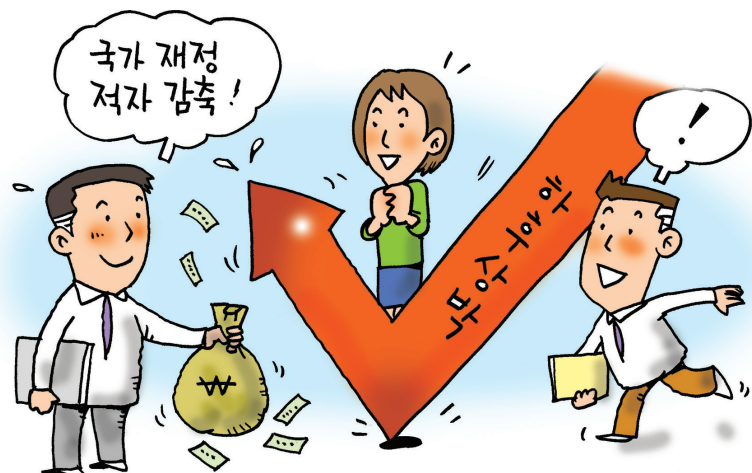
공무원 연금제도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❶ 현 정부부터 차차기 정부까지 정부보전금 47조8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현 정부('16~'17년) 4조2천억 원, 차기 정부('18~'22년) 20조3천억 원,
차차기 정부('23~'27년) 23조3천억 원의 정부보전금이 절감됩니다

❷ 6급 이하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5급 이상 공무원이 더 부담하도록 소득재분배를 시행하겠습니다

❸ 2016년 신규임용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연금지급 체계를 도입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 2015 예산안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中 —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2014 정기국회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中 —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교총 간담회(14.11.25)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면담(14.11.18)

❶ 연금액은 줄어들이지만 퇴직수당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 평균 공무원 1인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179만원에서 162만원으로 감소하나,
퇴직수당은 4,733만원에서 6,553만원으로 증가합니다

❷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연금액 차이가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기준소득 상한을 인하하여
5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연금액 차이가 현재보다 51% 감소하게 됩니다
(’06년 임용공무원 기준, 연금액 차이 : 87만원 ⇨ 4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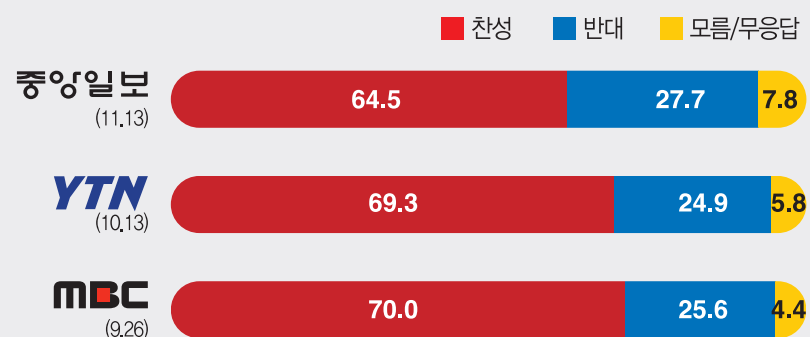
새정치민주연합은 눈치만 보며 어부지리하려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연금개혁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시간을 끌어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2008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개혁안과 현재 새누리당
개혁안의 기조는 유사합니다

- ▶ 퇴직연금 지급률 인하
- ▶ 신규임용공무원 국민연금가입
- ▶ 공무원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
- ▶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찬성!



시기를 놓치면 국민부담만 커집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